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 발전과정과 현황: 「한국도서관통계」를 중심으로 *

Statistical analysis of the libraries in Korean cities and provinces

전 명 숙(Myung-Sook Chun)**

목 차

1. 서 론
2. 도서관수, 장서수, 직원수,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예산액 분석
3. 가설검증
4. 결론과 제안

초 록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통계」에서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예산액을 수집하여 시계열분석하여 과거의 시와 도의 도서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이 결과 시·도별 도서관은 한국의 정치,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발전하였으며, 도서관간에는 차이가 많고 장서수, 예산액 등이 적으므로 도서관당 예산액과 장서수를 증가시켜서 지역도서관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끔 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growth and the present status of in 6 major Korean cities and 9 provinces libraries using statistical dat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tatistics on Libraries in Korea, and were analyzed for a time series by using the Excel program.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major statistics of libraries in Korea due to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country. The differences are also more likely related to the size of the library collections, budget and number of staffs.

* 본 연구는 97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1997년 11월 3일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이 디지털화하여 국제화되고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별 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서울특별시, 광역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국제적으로 정보봉사나 무역경쟁을 하는데 기본자료가 되며 국가적으로는 지역별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을 세우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지원으로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많았으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시(市)와 도(道)별 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과학적인 도서관운동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특히 1997년말까지 중앙과 지방간에 정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여러 가지 지역 정보화 활동이 펼쳐지게 되므로("정보화 추진내용" 동아일보, 1997 5. 29.) 지역 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한국도서관통계」에 방대하게 수집되어 있으나 이 자료를 포괄적

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수작업(手作業)으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발달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서관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 발전과정을 양적으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상을 질적으로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외국도서관의 자료와 쉽게 비교되므로 국제 도서관학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나 정보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와 도서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관한 이론을 도출하게 됨으로써 문헌정보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1.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에 관한 통계자료를 「한국도서관통계」에서 수집하여 연도별, 항목별로 정리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하거나 막대그림으로 표현하여 순위(順位)를 나타내고, 최대값, 최소값, 평균치, 중간치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

수집한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1995년까지의 연도를 독립변수로 정하고 광역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수, 장서수, 직원수, 증가책수, 이용책

수, 이용자수,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수와 도서관수에 기준을 두고 각 지역의 도서관 현상을 질적으로도 비교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서관에 관하여 수집한 경험적인 통계자료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분석하게 되므로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 되며 논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어 도서관을 질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양적인 도서관 분석은 수학과 통계학을 기본으로 하나 결과를 해석하는데는 여러 가지 사회과학의 지식과 이론을 응용하게 된다. 도서관에 관한 통계적인 숫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의 조건, 규범, 가치 등과 연관시켜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해 볼 때에만 의미가 있고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계열 분석방법과 그림은 추세연구로써 도서관현상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2) 연구의 정확성이 수집된 통계자료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를 「한국도서관통계」에서 수집하였으므로 「한국도서관통계」의 자료나 기타 통계자료의 정확한 정도에 따라서 본 연구의 정확성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시기에는 통계치가 틀리거나 인쇄 과정에 오자가 생겨서 이것이 도서관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Moran 1989).

3) 본 연구의 타당성은 수집된 자료의 항목에 달려있다. 통계자료가 축적되면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고 항목의 정의와 범위도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변수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3 이론적 배경

도서관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Harris(1995)는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과 도서관 발전에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통계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방법을 뒷받침 해주는 고전적인 이론에는 '도서관은 자라나는 유기체다' 라고 한 Ranganathan(1931)의 이론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에는 도서관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통계자료를 응용하여 주로 한 지역내 관중별 도서관으로 분석하거나 비교하여 제시한다. 예를 들면 미국 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부서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봉사하고 있는 인구수에 따라 도서관을 분류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도서관의 예산, 장서, 이용책수, 이용자수, 상호대차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계보고서(Statistical Report)로 발간한다. 대학과 연구도서관 부서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증가책

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예산액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순위를 부여한 결과(ACRL University Library Statistics)를 출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50주(洲)의 도서관수, 장서수, 예산을 지역별로 수집하고 분석하여(The Bowker Annual 1996) 주로 도서관연구자들과 서적상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결과는 미국내의 도서관 현상을 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서관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되므로 국제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Lynch(1987)는 관중별로 수록 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도서관수, 장서수, 사서수의 현황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은 통계자료중 필요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찾아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Jarred(1985)는 HE GIS 통계자료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미국 루이지애나와 남캐롤라이나 국립대학교의 증가책수, 정기간행물 구독수, 정사서수, 예산액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위의 여러 가지 변인이 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시도별 도서관에 관한 통계자료가 「한국도서관통계」를 비롯하여 「시도별 교육통계연보」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몇몇의 공공도서

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유길호(1994)는 시별 공공도서관을 연구하였고, 이두영(1991)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비교하여 자료, 직원, 예산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을 밝혀냈다. 손정표(1993)는 한국의 공공도서관수와 장서수, 시설 규모를 분석한 후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지역계획 수립을 강조하면서 이상적인 모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므로(한국도서관법령집 1998) 인구수를 기준으로 거의 기술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한국의 지역 도서관을 통계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도서관의 내부요인에 관한 통계를 「한국도서관통계」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에는 이진영(1976)과 전명숙(1996)의 연구가 있다. 이진영은 대학도서관의 장서수와 연간증가책수가 많으면 연간대출책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전명숙은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연간증가책수, 연간이용책수, 연간이용자수, 예산액 등을 수집하여 시계열분석 한 결과 한국 도서관의 발전은 도서관 내부의 기본요소인 사서수, 예산액, 장서수를 원인으로 하기보다는 도서관환경, 즉 도서관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국가에서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 도서관이 발전한 것을 귀납적으로 증명하였다. 반면에 조찬식(1996)은 한국의 정치적 조건이나 도서관법의 제정과 한국의 사서직 발전을 연역

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발전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1. 4 가설 및 용어 정의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인구수나 이용자수에 따라서 운영되었으나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도서관간에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등에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도서관내에서는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이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전개하게 된다.

1)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은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자 수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직원수, 장서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간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였다.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 : 행정적인 구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特別市)와 5개의 광역시(廣域市) 그리고 9개도(道)에 속한 15지역의 도서관이다.¹⁾

이것은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도서관과는 의미가 다르다²⁾.

도서관 발전 : 도서관수, 장서수, 사서수 등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시계열분석 :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의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시간의 경과는 동일한 간격에 따라야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변화하여야 한다(김연형, 이기훈 1993). 본 연구에서는 연(年) 도를 독립변수로 정하고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증가 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분석하게 된다.

2. 도서관수,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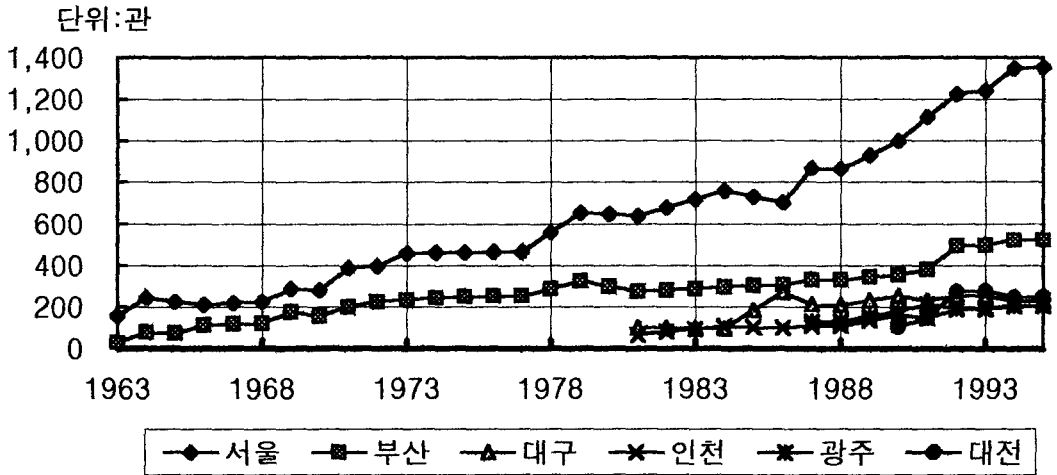
2.1 도서관수

도서관은 문화적 기능, 교육적 기능,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시(市)와 도(道)민을 위한 공공, 학교, 대학, 특수도서관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림 1. 1>과 <그림 1. 2>는 시도별 도서관수의 증가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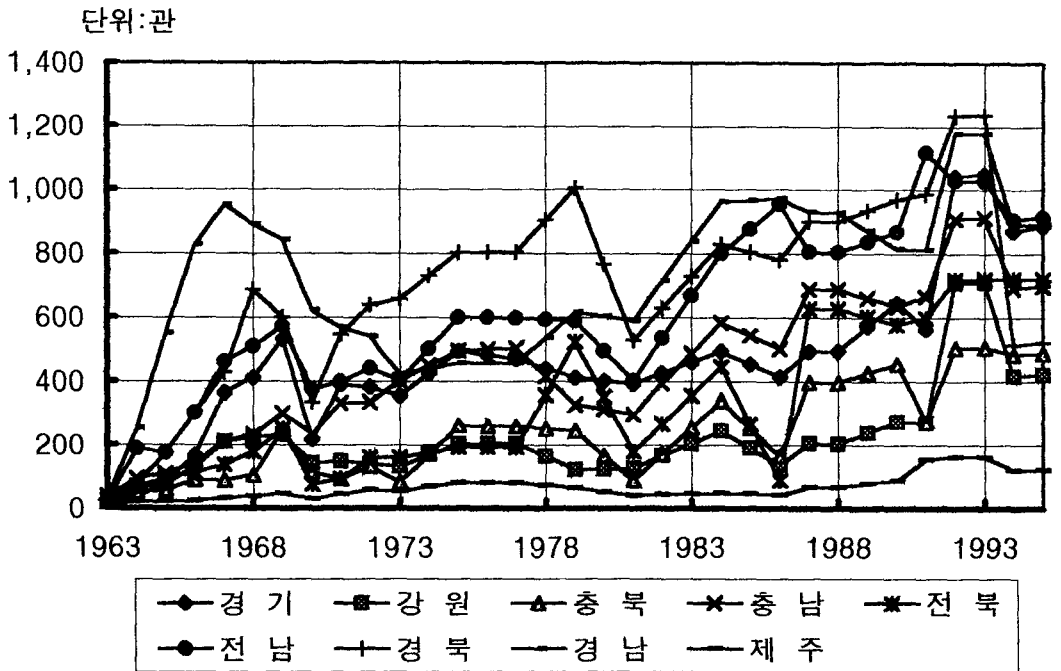
서울의 도서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3년에 157개관 이었던 도서관은 30년후인 1995년에 1,354개관

1) 1997년 광역시가 된 울산은 제외됨.

2) 지역사회도서관(Community library)은 인구 55,000명 정도의 지역사회에 설치된 도서관으로 적절한 장서를 갖추고, 1주일에 48-66시간정도 봉사함(사공철 1996, 349).



<그림 1. 1> 시(市)별 도서관수(196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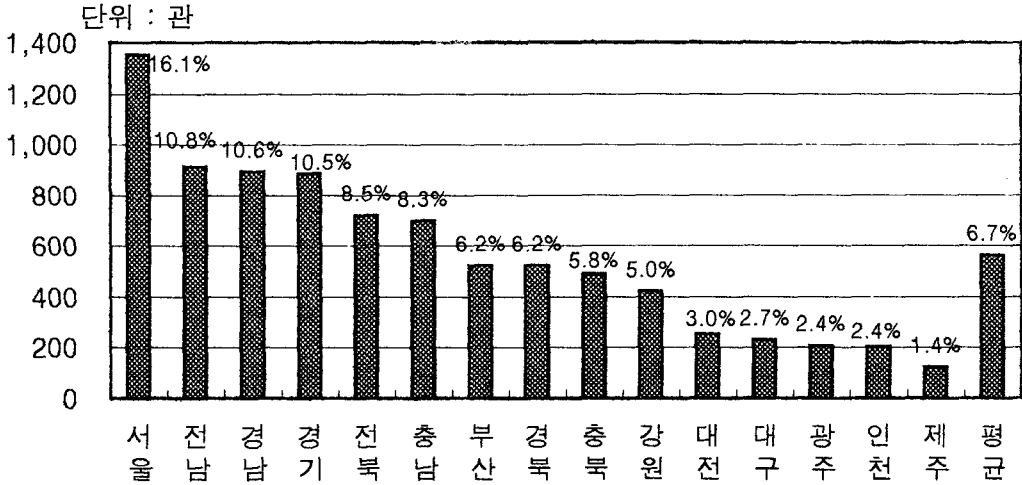
<그림 1. 2> 도(道)별 도서관수(1963-1995)

* 「한국도서관통계」, 196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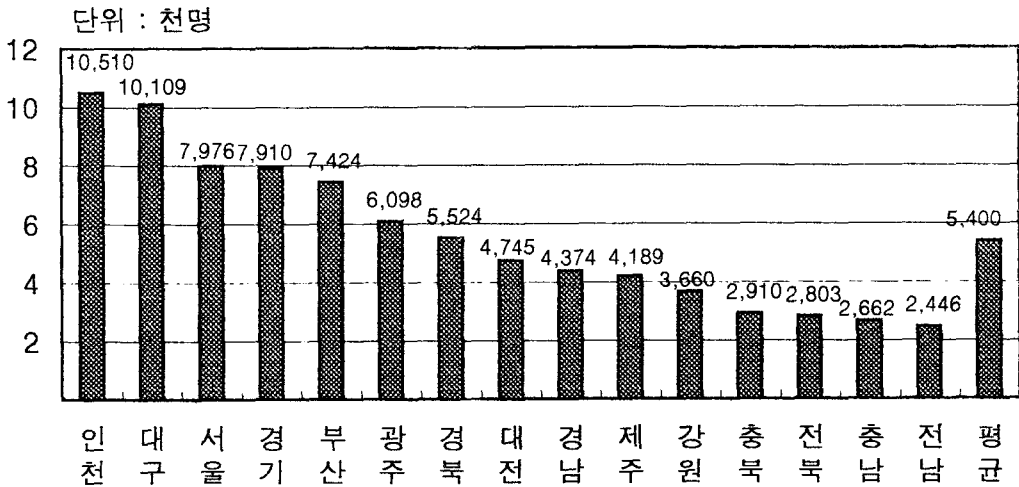
으로, 부산의 도서관수는 1963년에 27개관에서 521개관으로 증가하였다.

도별 도서관수는 매우 불규칙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도서관수가 1963년부터 갑자기 증가하여 1967년에는

952개관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북의 도서관수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1970년과 1979년에는 도서관수가 감소한 지역이 많았다. 1995년 현재 시(市)와 도(道)별 도서관수 비율은 <그림 1. 3>과 같다.



<그림 1. 3> 1995년 시도(市道)별 도서관수



<그림 1. 4> 1995년 시도(市道)별 도서관당 인구수

한국의 도서관수는 전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도서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354개관; 16.1%)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122개관; 1.4%)이다. 시와 도의 평균 도서관수는 562개관으로 9개 지역이 평균 도서관 수보다 적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도서관당 봉사하고 있는 인구수를 살펴보면 <그림 1. 4>와 같다.

전국적으로 한 도서관은 평균 인구가 5,400명을 봉사하고 있으며, 평균 인구보다 많은 지역을 봉사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대구 등 7개 지역이다.

2. 2 장서수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은 그 지역의 모든 출판물과 향토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보요구를 충족

시키고 지방의 독특한 상품이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시키게 되며 과거자료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별 장서수의 연도별 증가추세는 <그림 2. 1>과 <그림 2.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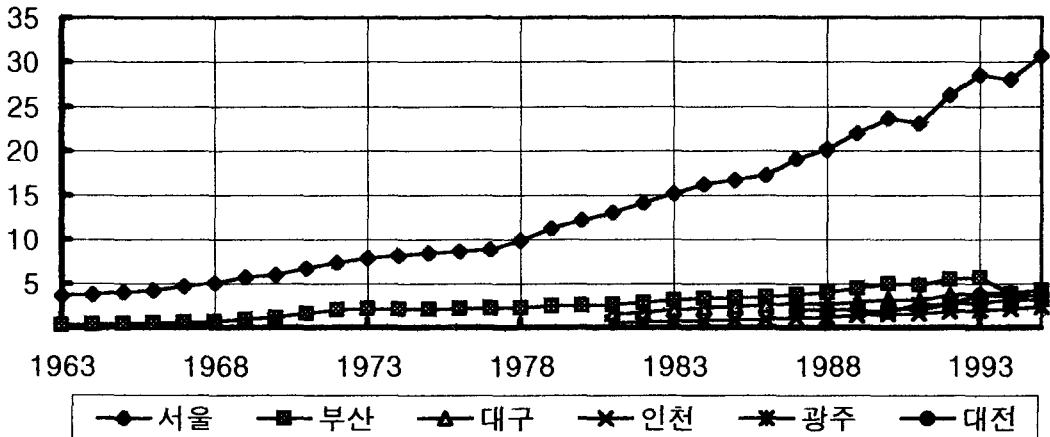
연도별 장서 증가수는 매우 적으며 매년 고른 증가치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장서수는 꾸준히 증가한 편이나 5개 광역시의 장서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아 현재 서울시와 5개 광역시의 장서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1970년대에는 경북의 장서량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1979년 이후 갑자기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장서수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2.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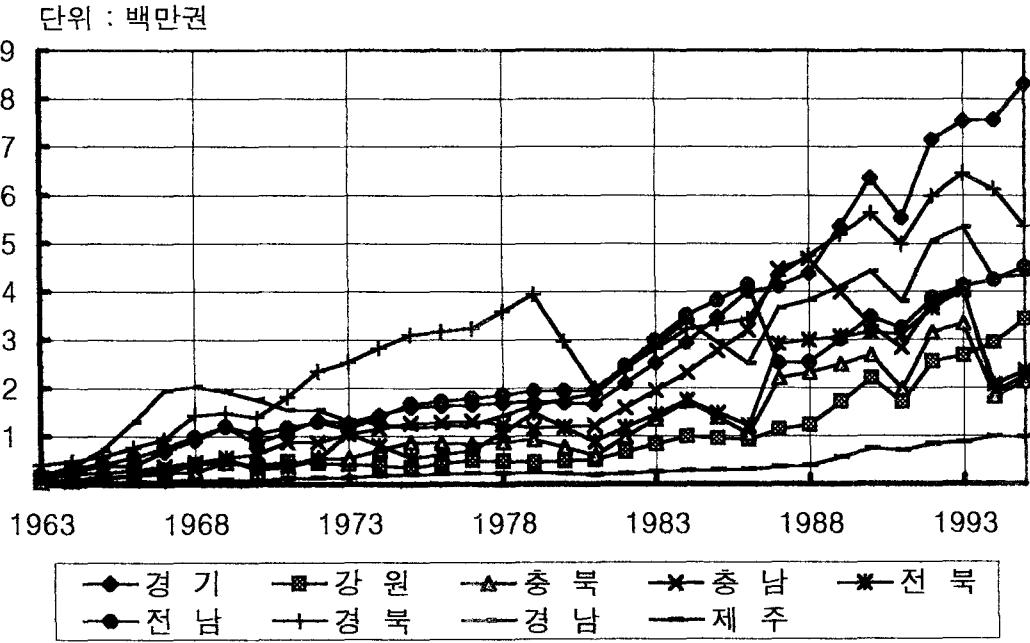
시도별 장서수 평균은 5,460,592권으로 중간치는 대전(3,683,138권; 4.5%)이다.

평균 이상의 장서를 소장한 지역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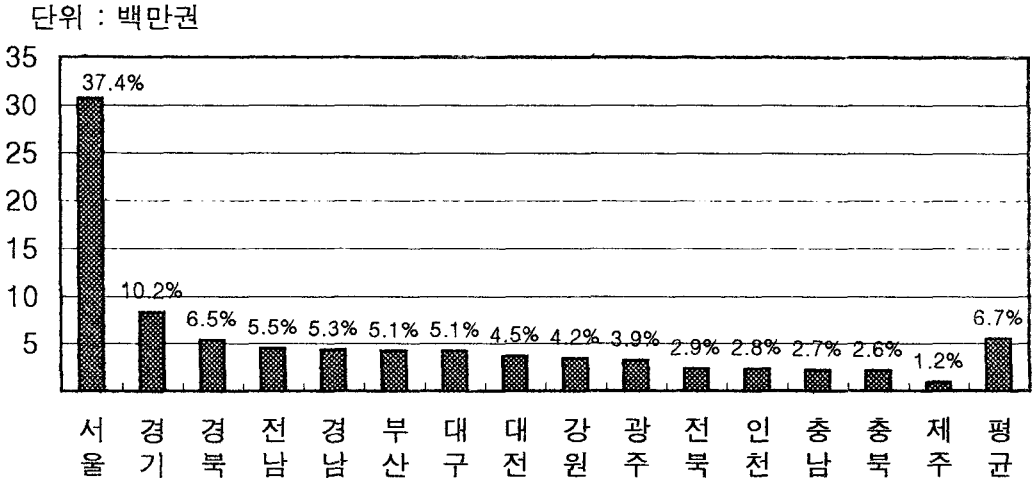
단위 : 백만권



<그림 2. 1> 시(市)별 장서수(196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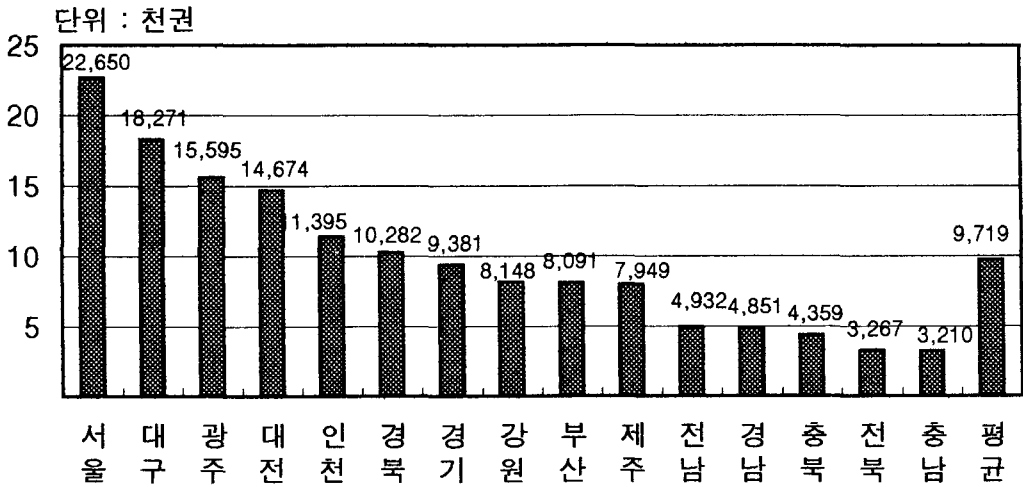
〈그림 2. 2〉 도(道)별 장서수(196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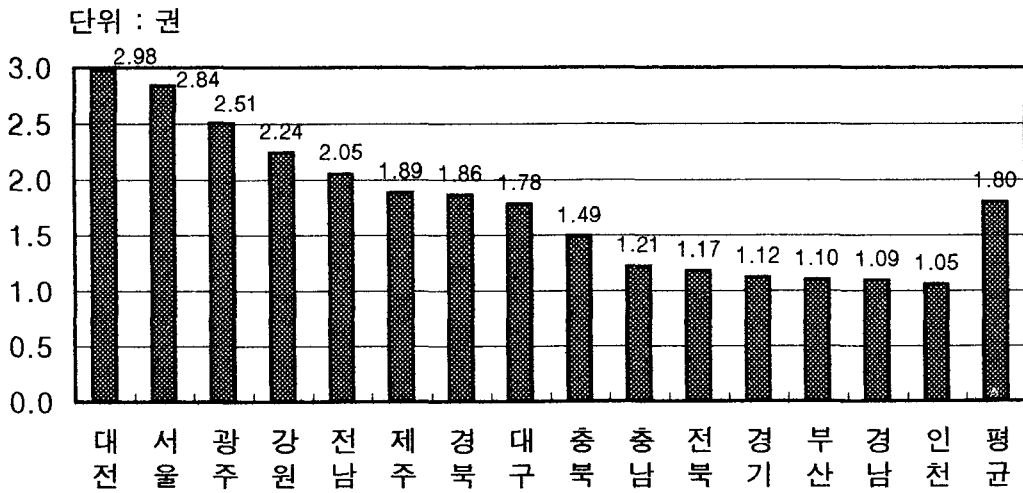
〈그림 2. 3〉 1995년 시도(市道)별 장서수

울 (30,667,882권 :37.4%)과 경기도 (8,320,976권: 10.2%) 2개 지역뿐이다.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를 살펴보면 〈그림 2. 4〉와 같다.



<그림 2. 4> 1995년 시도(市道)별 도서관당 장서수



<그림 2. 5> 1995년 시도(市道)별 인구당 장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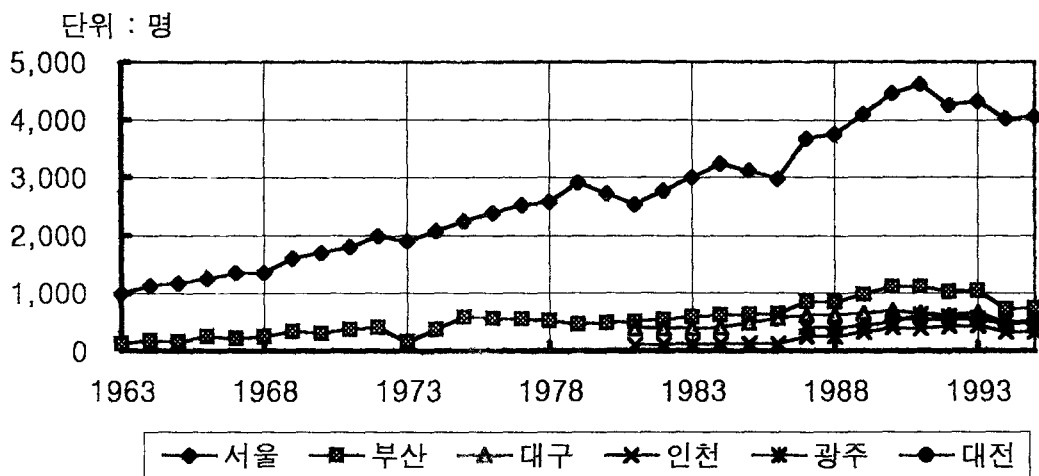
시·도별 평균 도서관당 장서수는 9,719 권으로 도서관당 장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2,650권)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3,210권)이다. 이러한 도서관이 봉사하고 있는 인구수에 따른 장서수를 보면 <그림 2. 5>와 같다.

시도별 평균 인구당 장서수는 1.80권으로 인구당 장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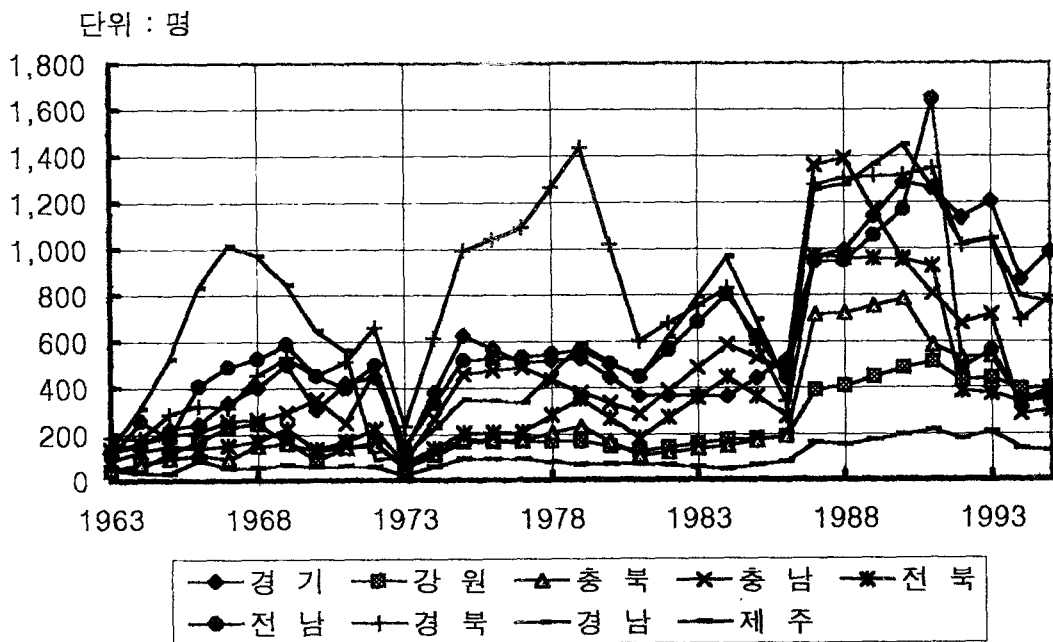
전(2.98권)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1.05권)이다.

2. 3 직원수

도서관의 장서수가 많더라도 이를 제공하는 직원이 있어야 이용된다. 다음 <그림 3. 1>과 <그림 3. 2>는 1963년부터 1995년



〈그림 3. 1〉 시(市)별 직원수(196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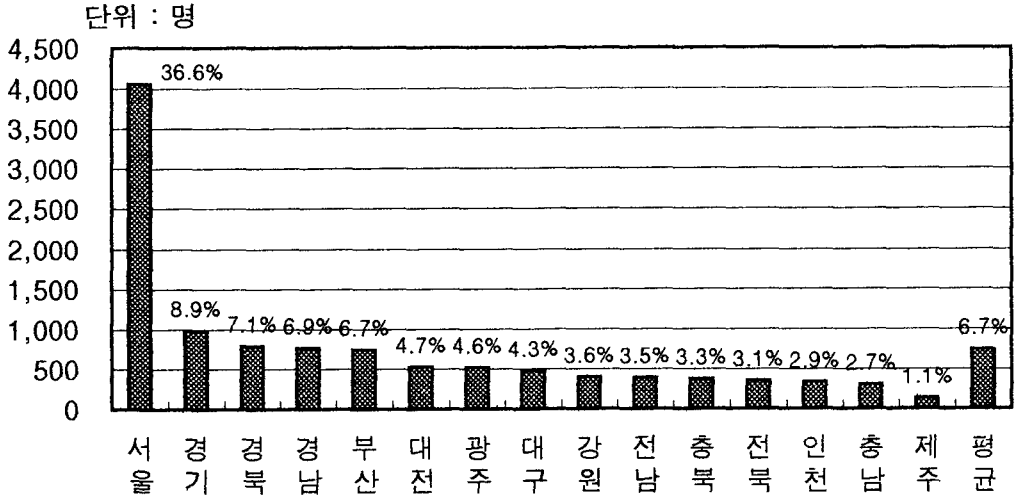


〈그림 3. 2〉 도(道)별 직원수(196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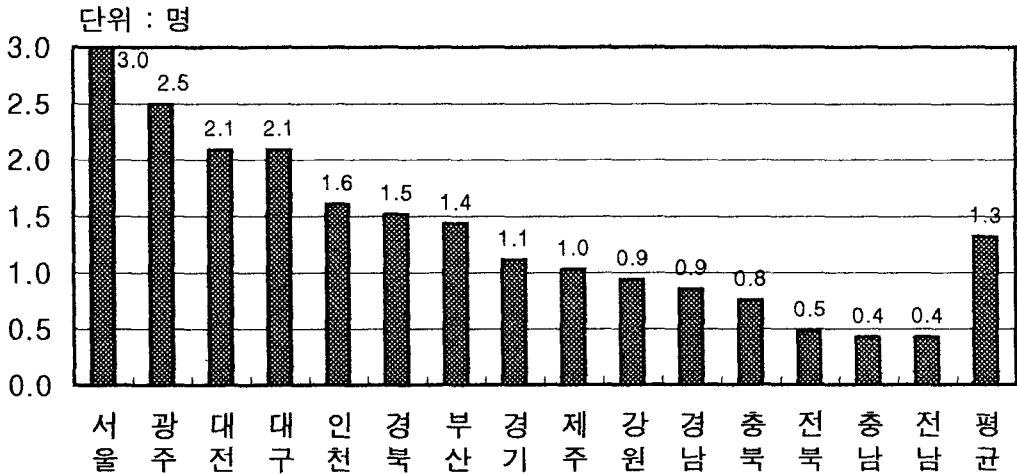
까지의 시(市)와 도(道)의 직원수 증가추세이다.

서울의 직원수는 꾸준히 증가한 편이나

5개 광역시의 직원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아 현재 서울시와 5개 광역시의 직원수에는 많이 차이가 있다.



〈그림 3. 3〉 1995년 시도(市道)별 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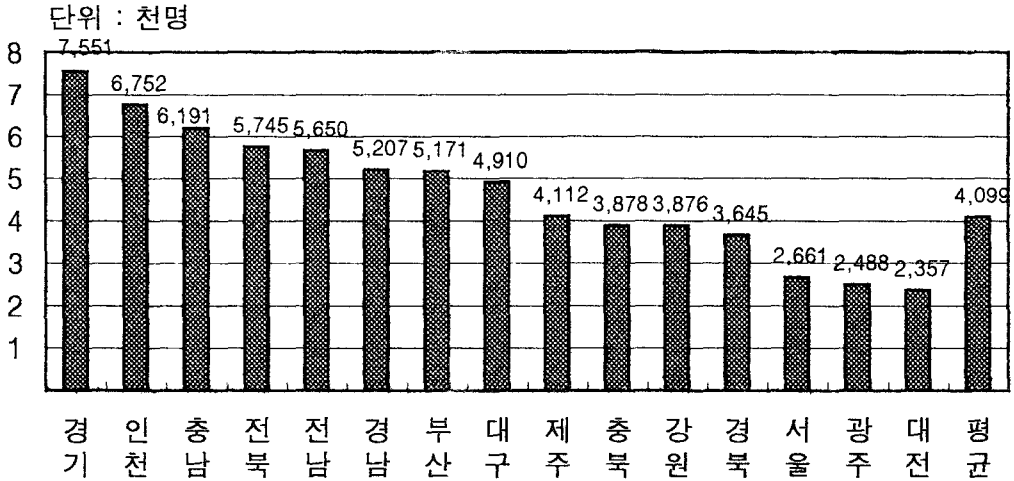
〈그림 3. 4〉 1995년 시도(市道)별 도서관당 직원수

직원수의 증가도 대단히 불규칙 하다. 1960대에는 경남의 직원수가 갑자기 증가 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경북의 직원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1973, 1979, 1986년에는 직원수가 갑자기 감소하였다. 1988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직원수가 증가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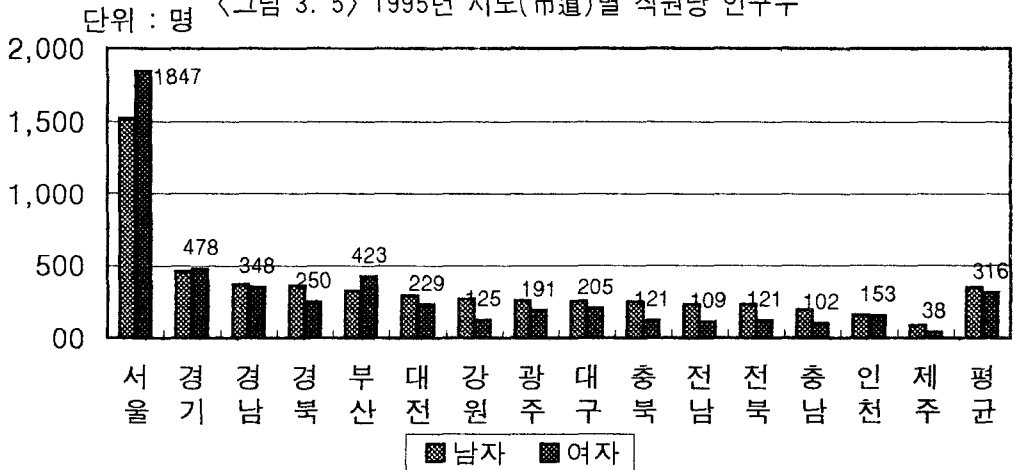
로 나타났다.

1995년 현재 직원수의 비율은 〈그림 3. 3〉과 같다.

평균 직원수는 740명으로 중간치는 대구(478명; 4.3%)이다. 평균 직원수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4,059명; 36.6%)을 위



〈그림 3. 5〉 1995년 시도(市道)별 직원당 인구수



〈그림 3. 6〉 1995년 시도(市道)별 남녀 직원수

시하여 5개 지역이다. 도서관당 봉사하고 있는 직원수는 〈그림 3. 4〉와 같다.

도서관당 평균 직원수는 1.3명으로 직원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이 서울(3.0명)을 포함하여 7개 지역이다. 도서관당 평균 직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0.4명)과 전남(0.4명)으로 서울의 직원수(3.0명)는 이들 지역보다 7.5배 많다.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직원당 인구수는 〈그림 3. 5〉와 같다.

한 직원이 봉사하는 평균 인구수는 4,099명이고 직원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7,551명)이다. 직원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2,357명)이다.

인구수가 평균 직원당 인구수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하여 9개 지역이다. 도서관의 직원수를 남녀별로 구별하여 보면 〈그림 3. 6〉과 같다.

여자 직원수가 남자 직원수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54.64%), 경기(50.90%) 부산(56.85%) 뿐으로 거의 모든 지역은 남자 직원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자 직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1,847;39.0%)이고 다음이 경기도(478;10.1%) 부산(423;8.9%)의 순이며 여자 직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38;0.8%)다.

2. 4 도서관 예산액

<그림 4. 1>과 <그림 4. 2>는 1963년도부터 1995년까지의 시(市)와 도(道)의 예산 증가추세이다.

서울의 예산은 198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는 더욱 높은 증가를 보였다. 각 도의 예산도 198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후에는 더욱 높은 증가를 보였다.

1995년 현재의 전국 예산액은 <그림 4.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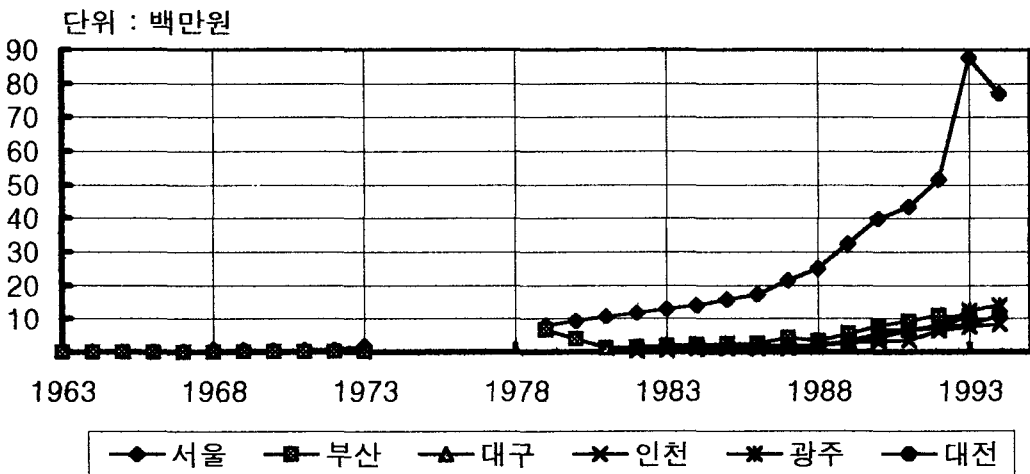
도서관 예산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전체 한국도서관 예산의 23.2%) 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2.5%)이다. 예산액이 전국 평균을 넘는 지역은 5개 지역이다.

도서관당 예산액은 <그림 4.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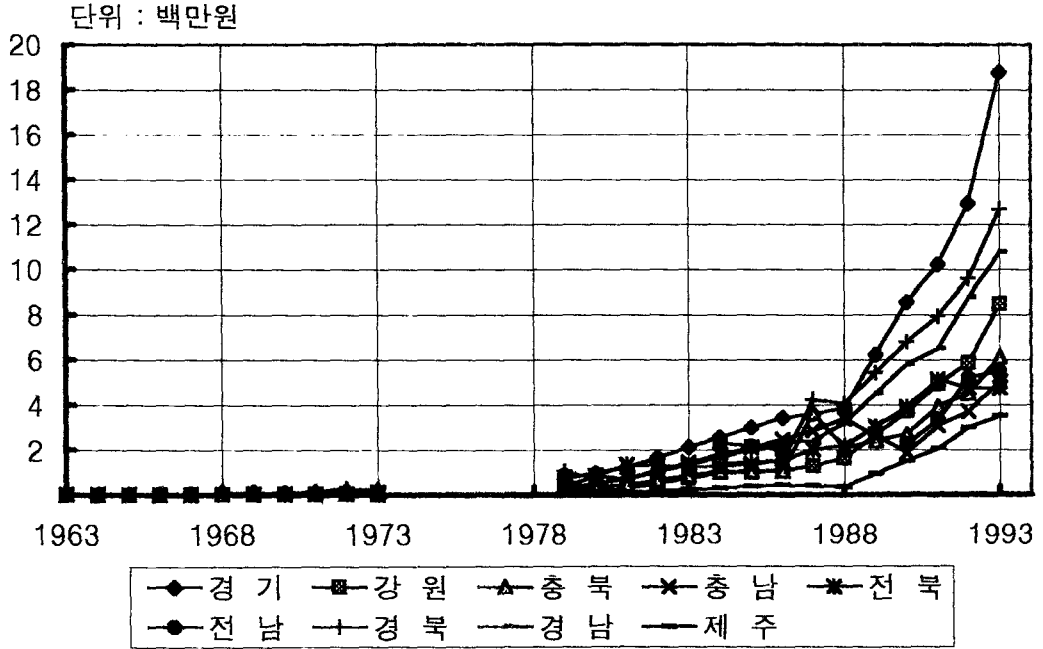
도서관당 평균 예산액은 26,363,000원이며 중간치는 전북(23,290,000원)이다. 평균 예산액 이상이 되는 지역은 6개 지역으로 도서관당 예산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110,483,000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6,937,000원)다.

시도별 인구당 예산은 <그림 4.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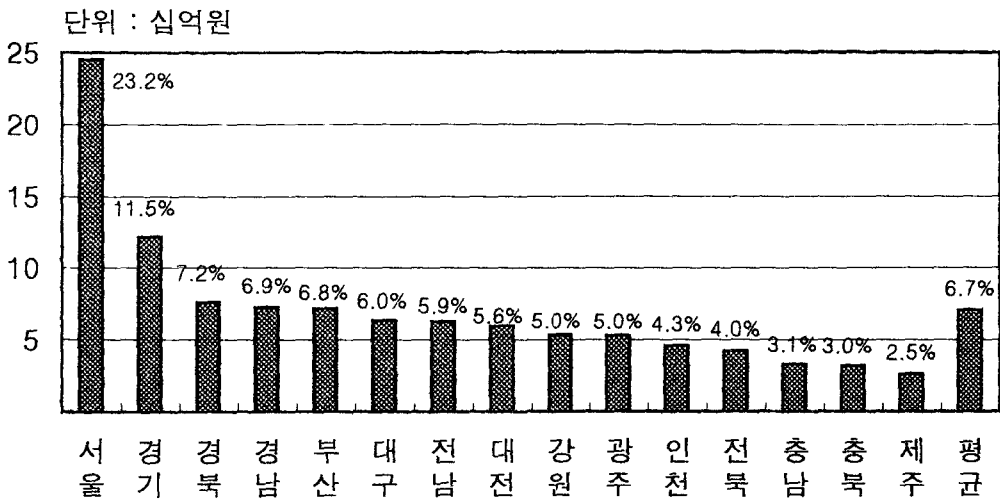
인구당 평균 예산액은 5,000원이며 평균 예산액 이상이 되는 지역은 7개 지역으로 인구당 예산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33,000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1,000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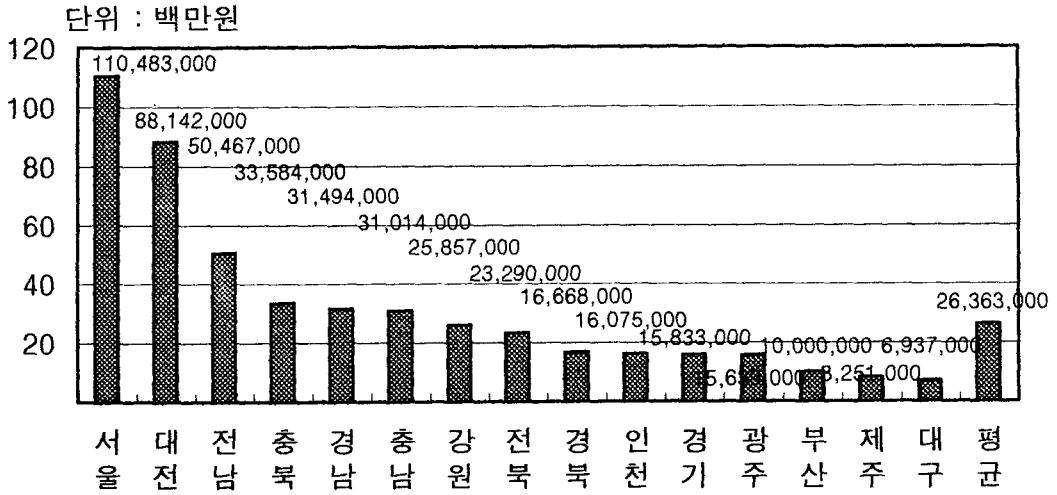
<그림 4. 1> 시(市)별 예산(1963-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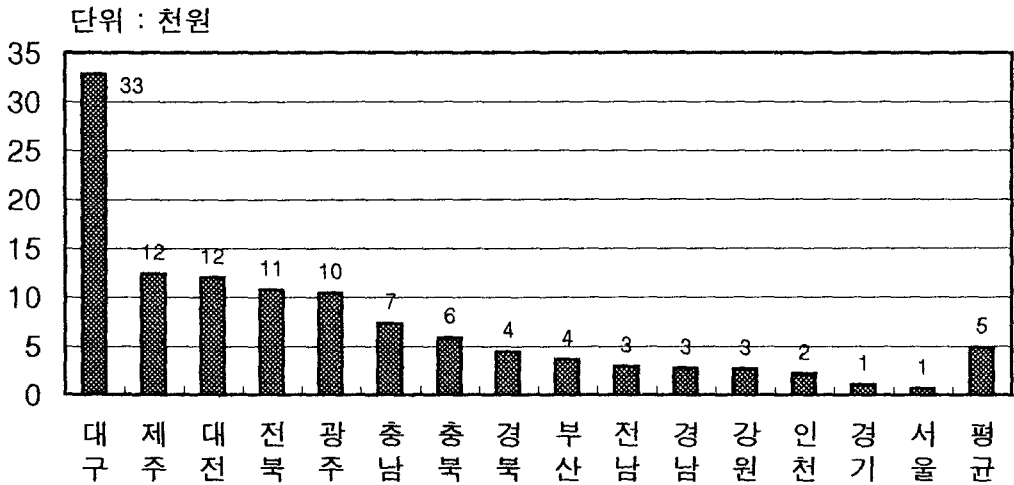
〈그림 4. 2〉 도(道)별 예산(1963-1993)



〈그림 4. 3〉 1995년 시도(市道)별 예산



〈그림 4. 4〉 1993년 시도(市道)별 도서관당 예산



〈그림 4. 5〉 1993년 시도(市道)별 인구당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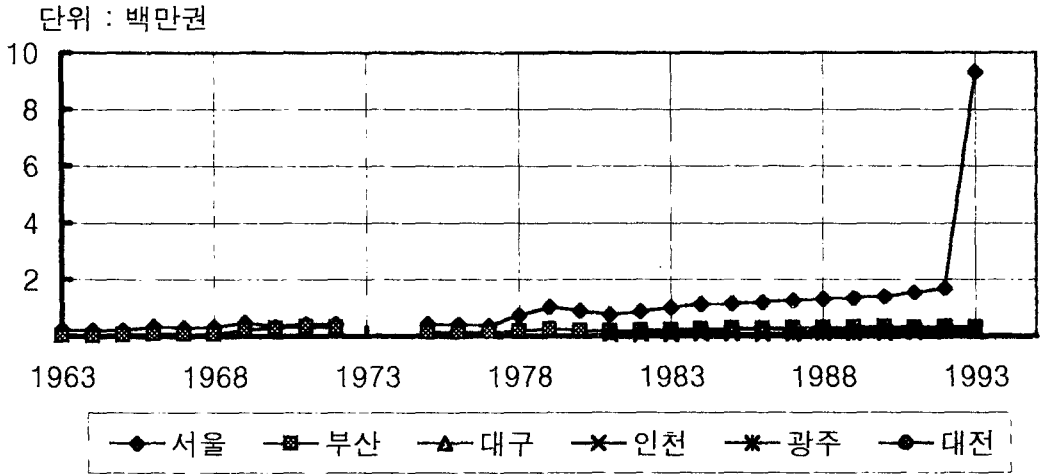
2. 5 증가책수

다음 〈그림 5. 1〉과 〈그림 5. 2〉는 1963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市)와 도(道)의 장서 수 증가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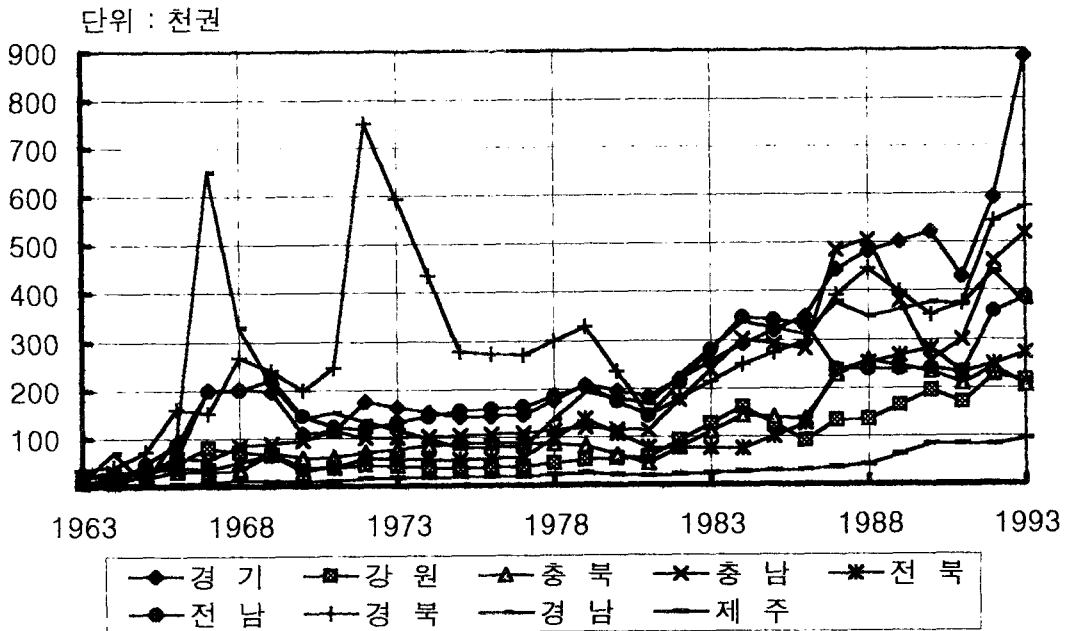
1990년대부터 서울과 경기의 책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고, 다른 지역의 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은 1960년대에

책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는 경북의 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현재의 시도별 증가책수는 〈그림 5. 3〉과 같다.

평균 증가율은 938,478권이고 중간치는 광주 282,480권이다. 서울 9,308,704권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평균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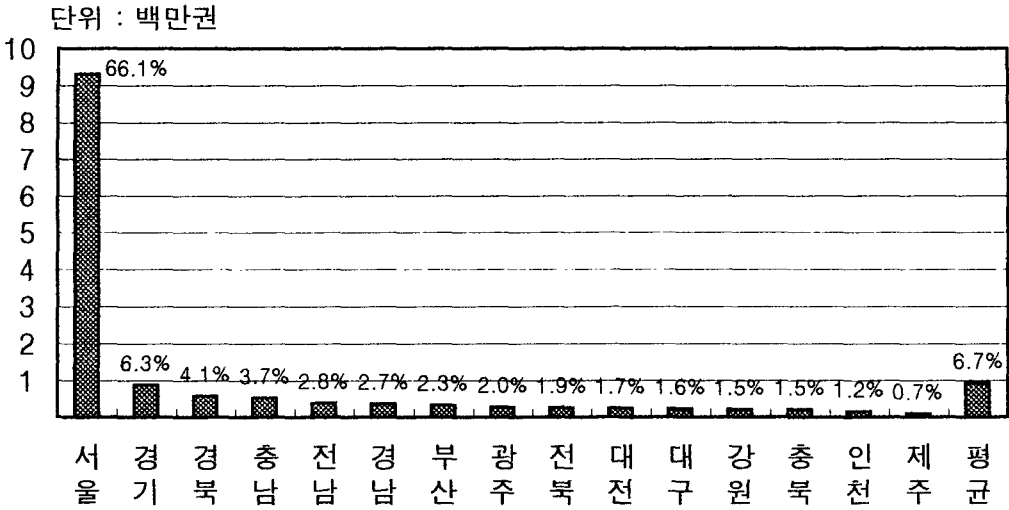
<그림 5. 1> 시(市)별 증가책수(1963-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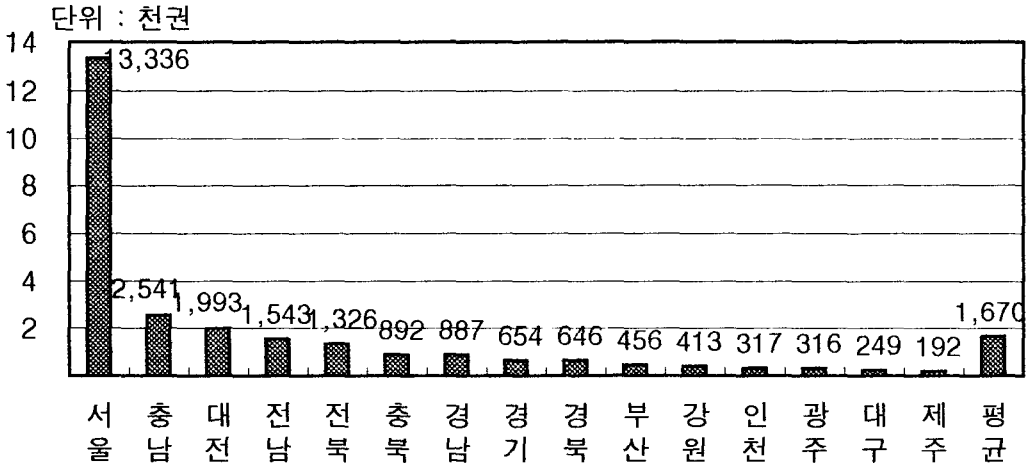
<그림 5. 2> 도(道)별 증가책수(1963-1993)

1995년 현재의 도서관당 증가책수는 < 그림 5. 4>와 같다.

도서관당 평균 증가책수는 1,670권이며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 충남, 대전의



〈그림 5. 3〉 1995년 시도(市道)별 증가책수



〈그림 5. 4〉 1993년 시도(市道)별 도서관당 증가책수

3개 지역이다. 도서관당 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13,336권)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192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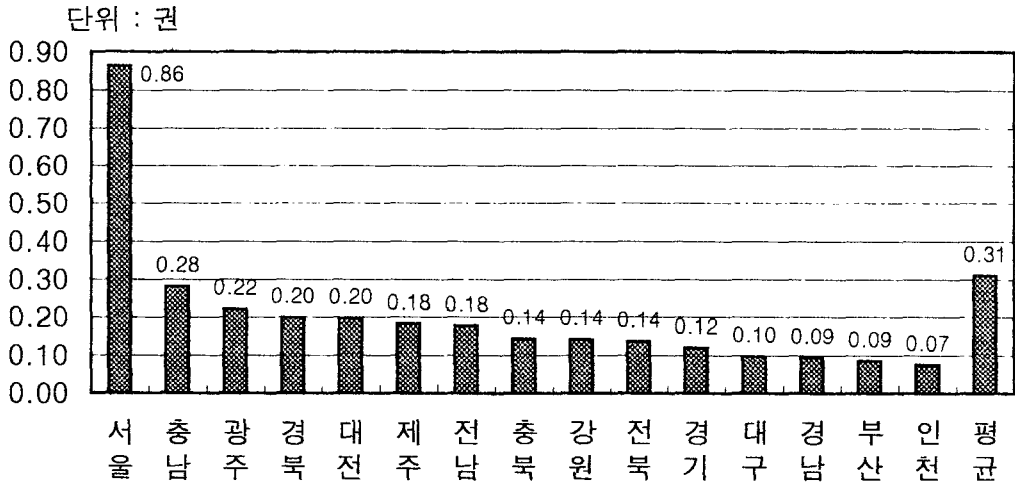
인구당 증가책수는 〈그림 5. 5〉와 같다.

평균 인구당 증가책수는 0.31권이며 중간치는 충북, 강원, 전북(0.14권)이다. 평균 인구당 증가책수보다 많은 지역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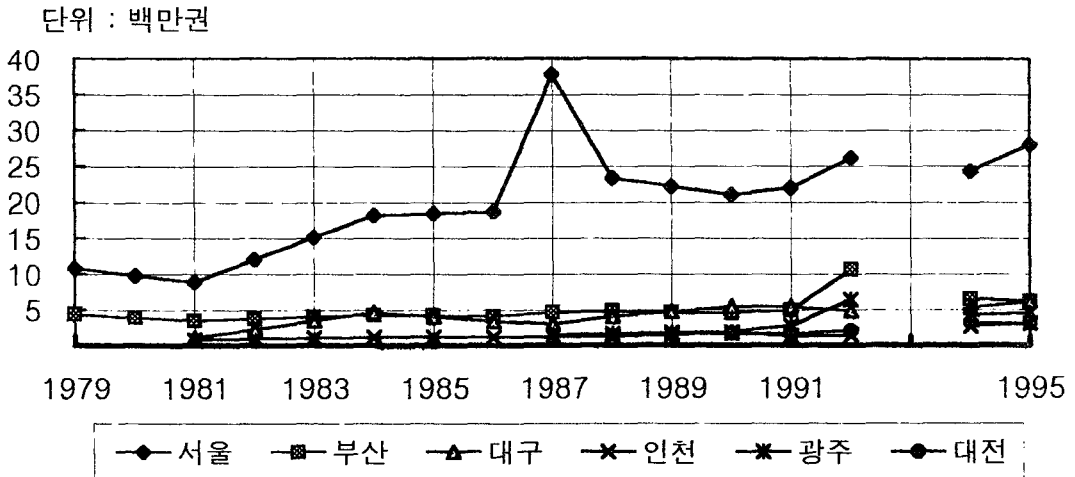
울(0.86권)뿐이다.

2. 6 이용책수

〈그림 6. 1〉과 〈그림 6. 2〉는 1963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市)와 도(道)의 이용책수 증가 추세이다.



〈그림 5. 5〉 1993년 시도(市道)별 인구당 증가책수



〈그림 6. 1〉 시(市)별 이용책수(1979-1995)

서울의 이용책수가 1987년 갑자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1986년, 1993년에는 거의 모든 도서관의 이용책수가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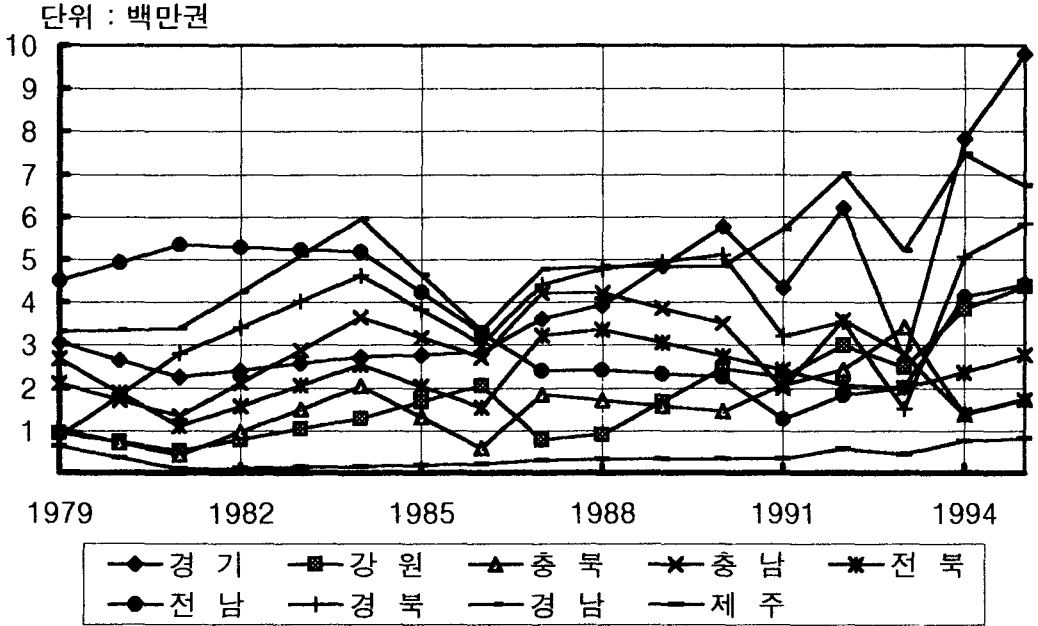
1995년 현재의 전국 도서관의 이용책수는 〈그림 6. 3〉과 같다.

도서관에서 책이 가장 많이 이용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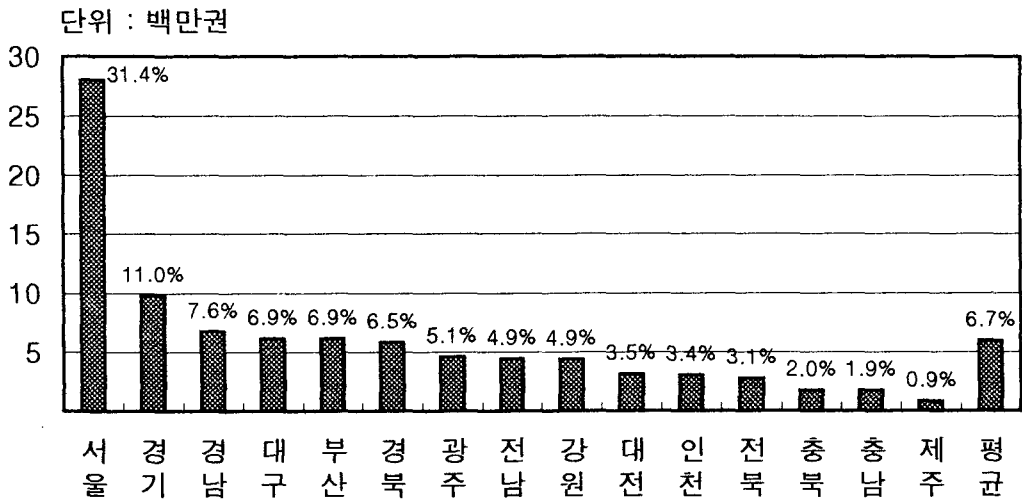
역은 서울로, 전국에서 이용된 책의 31.4%가 서울에서 이용되었다. 이용책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0.9%)다.

1995년 현재의 전국 인구당 이용책수는 〈그림 6. 4〉와 같다.

평균 인구당 이용책수는 1.96권이며 중 간치는 경남 1.70권 이다. 인구당 이용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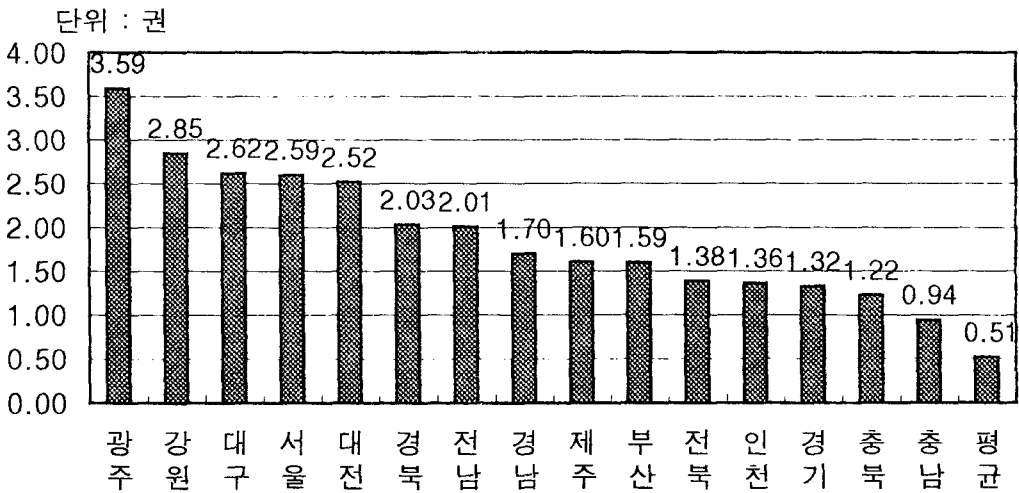
〈그림 6. 2〉 도(道)별 이용책수(1979-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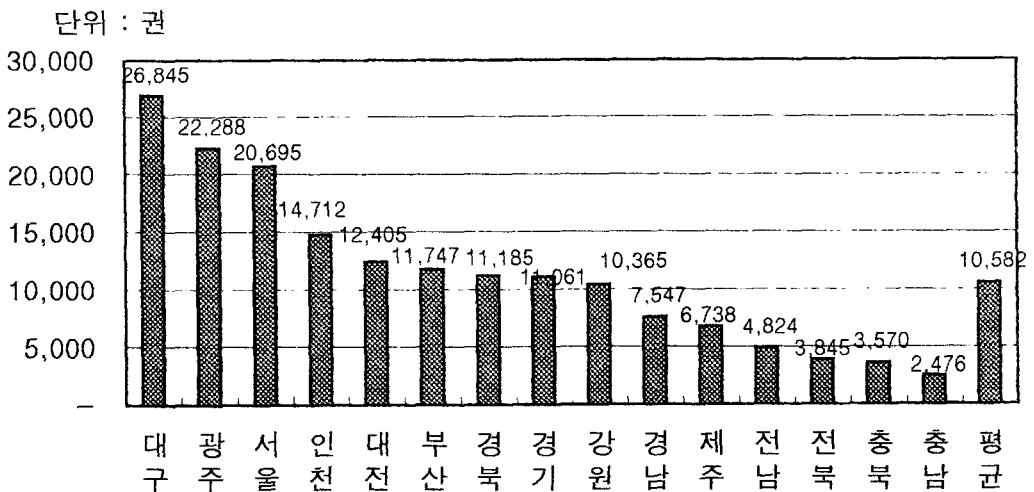
〈그림 6. 3〉 1995년 시도(市道)별 이용책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3.59권)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0.94권)이다.

전국 도서관당 이용책수는 〈그림 6. 5〉
와 같다.



<그림 6. 4> 1995년 시도(市道)별 인구당 이용책수



<그림 6. 5> 1995년 시도(市道)별 도서관당 이용책수

2. 7 이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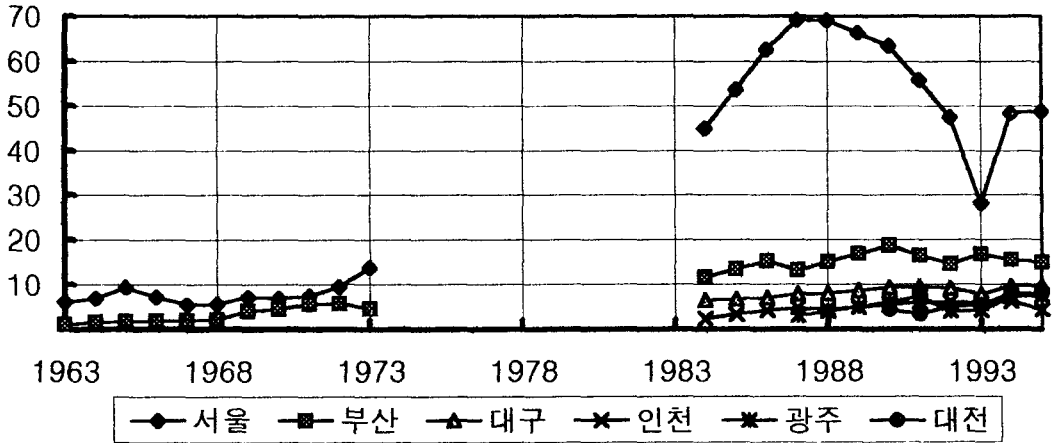
<그림 7. 1>과 <그림 7. 2>는 1963년부터 1995년까지의 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수다.

서울의 이용자수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이용자수

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경남의 이용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1987년과 1988년에는 충남의 이용자수가 많았으나 1990년에는 경기도의 이용자수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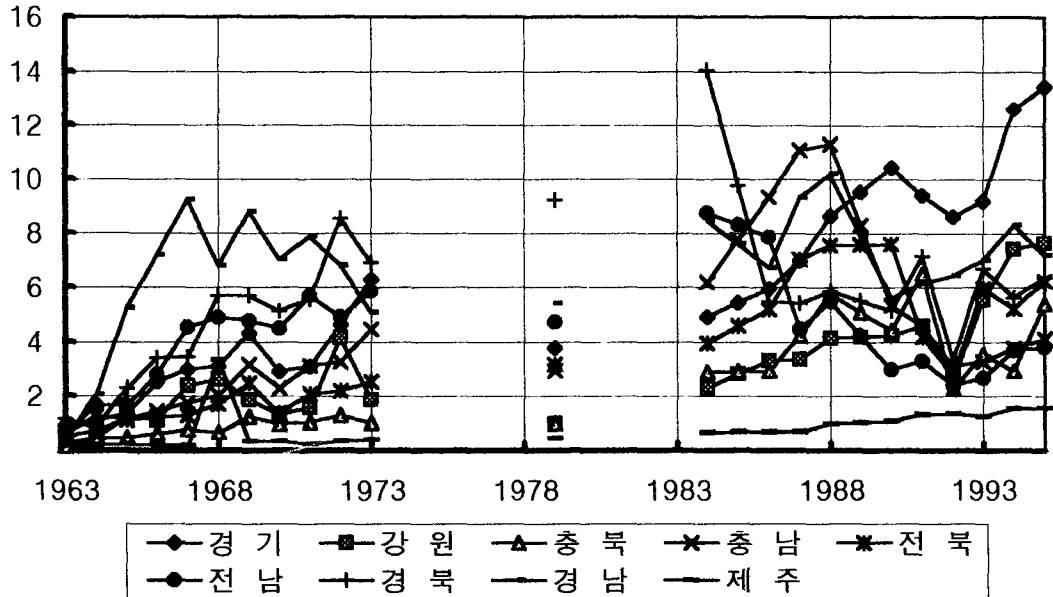
1995년 현재의 전국 이용자수는 <그림 7. 3>과 같다.

단위 : 백만명



<그림 7. 1> 시(市)별 이용자수(1963-1995)

단위: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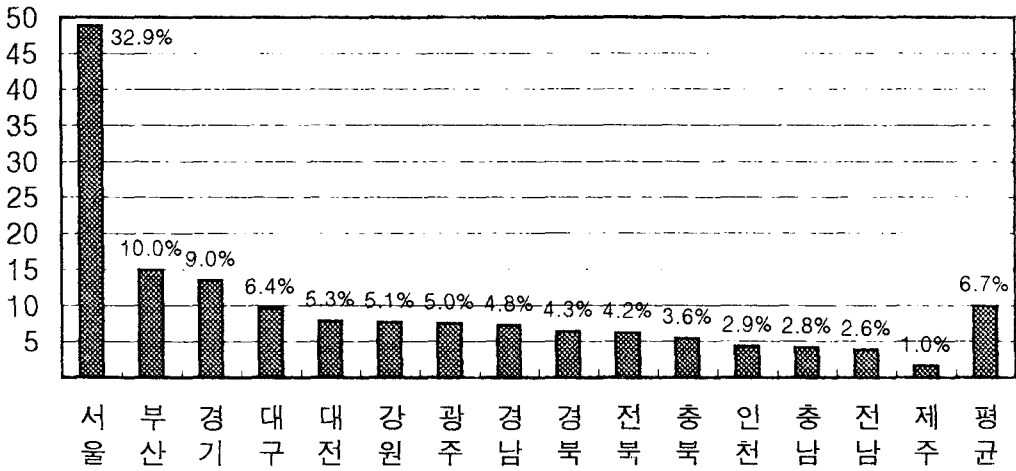


<그림 7. 2> 도(道)별 이용자수(1963-1995)

평균 이용자수는 9,914,394명(6.7%)이며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역이다. 중간치는 경남(7,189,4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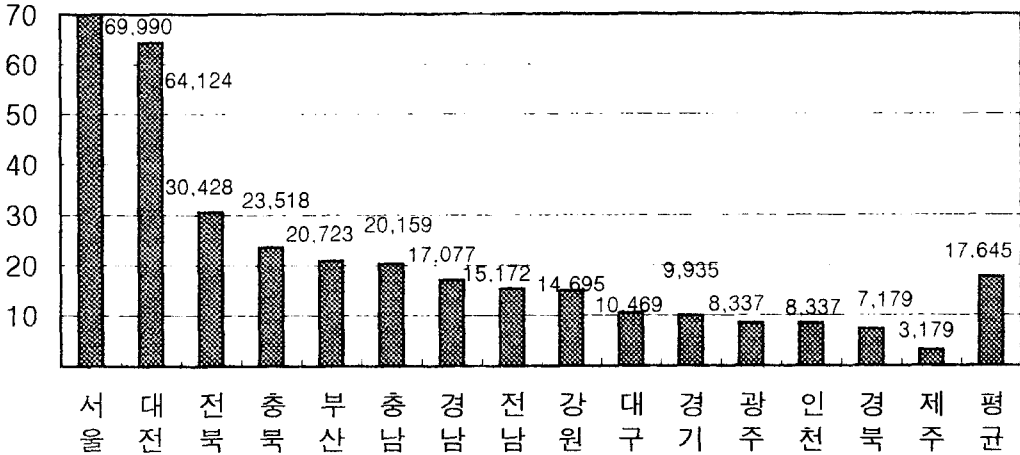
4.8%)이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8,853,362명; 32.9%)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1,551,138명; 1.0%)이

단위 : 백만명



<그림 7. 3> 1995년 시도(市道)별 이용자수

단위 : 천명



<그림 7. 4> 1995년 시도(市道)별 도서관당 이용자수

다. 명)다.

1995년 현재의 전국 도서관당 이용자수는 <그림 7. 4>와 같다.

평균 도서관당 이용자수는 17,645명이고 중간치는 전남 15,172명이다. 도서관당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9,990명)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3,179

3. 가설검증

분석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市)와 도(道)의 자료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도서관이 크게 발전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서울의 도서관수는 1963년부터 30년후인 1995년까지 90% 증가되었으며 이 기간중 부산의 도서관은 190% 증가하여 521개관이 되었다. 1963년 서울과 부산의 도서관수 차이는 130개관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833개관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도서관은 1986년 갑자기 97개관이 증가하였다. 도별 도서관수도 매우 불규칙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70년과 1979년에는 도서관수가 감소한 지역이 많다. 1970년경에는 군사정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많아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으며, 1979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해로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통계자료 수집이 미진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연대별로 보면 1960년대에는 경남의 도서관수, 장서량, 직원수, 증가책수, 이용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경북의 도서관수, 장서량, 직원수, 증가책수, 이용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장서수가 1990년부터 많이 증가한 것은 정부에서 대학도서관의 책수를 정책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전명숙 1995). 그러나 서울의 이용자수는 증가하지 않아서 책의 해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원수는 1973년과 1979, 1986년에 갑자기 감소하였다가 1988년이후에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1987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고 198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산이 1980년 이후부터 서울에서 서서히 증가한 것은 전산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1990년도 이후에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1987년 도서관법 개정이후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증가하고 1991년부터 대학도서관에 국고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전명숙 1996, 241). 이용자수는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대전 등 시(市)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987년과 1988년에 이용자가 수가 많았다. 1990년대에 경기도에 이용자가 수가 증가한 것은 정책적으로 신도시를 설립하여 인구가 증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약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군사정권하에서는 영남지역의 도서관이 많이 발전함을 볼 수 있었다. 1970년초의 불안한 정국이나 1979년의 박대통령 사망은 각 지역의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증가책수, 이용자수를 감소시켜서 도서관 발전을 저해한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88년의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이나 1990년대 초의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예산지원, 1993년의 “책의 해” 지정 등의 국가 정책은 시도별 도서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은 시와 도의 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을 지지하게 된다.

2) 시(市)와 도(道)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도서관수,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의 분포는 대단히 불균등하다. 최고값은 모두 서울이며 최소값은 제주도로 서울이 전국의 도서관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값과 최소값의 범위도 넓고 평균치와 중간치의 차이 또한 크다. 그리고 인구나 도서관수에 따라 <표 1>과 같이 도서관 현상도 달라진다.

범위가 넓은 것은 도서관당 장서수, 직원수, 예산,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다. 최대값은 시에 편중되었고 최소값은 도에 한정되었다. 서울, 경기도, 부산에서는 여자 사서의 수가 남자 사서의 수보다 많다. 대전에 인구당 장서수와 도서관당 직원수가 많고 직원당 인구수가 가장 작은 것은 대덕에 전문도서관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1988년의 도서관법 개정후 직원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1993년의 책의 해'에는 장서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국가정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서관은 지역적으로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증가책수, 이용자수, 예산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2)를 지지하게 된다.

3) 도서관 내부요인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 <표 1>에 의하면 서울의 도서관당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요인들간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당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책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표 1> 도서관당, 인구당 도서관 현상

항목\자료	최대값	최소값	범위
도서관당 인구수	10,510명(인천)	2,446명	8,064명
도서관당 장서수	22,650권(서울)	3,210권	19,440권
인구당 장서수	2.98권(대전)	1.05권	1.93권
도서관당 직원수	3.0명(서울)	0.4명	2.6명
직원당 인구수	7,551명(경기)	2,357명	5,194명
도서관당 예산	110,483천원(서울)	6,937천원	103,546천원
인구당 예산	33,000원(대구)	1,000원	32,000원
도서관당 증가책수	13,336천권(서울)	192천권	13,144천권
인구당 증가책수	0.86권(서울)	0.07권	0.79권
인구당 이용책수	3.59권(광주)	0.94권	2.65권
도서관당 이용책수	26,845권(대구)	2,475권	24,370권
도서관당 이용자수	69,990명(서울)	3,179명	66,811명

4. 결론과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市)와 도(道) 도서관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즉, 도서관은 정치가 불안한 군사정부 하에서나 사회여건이 불안정할 때는 발전하지 못하였고, 국가에서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도서관에 국고금을 보조하거나 '1993년 책의 해'와 같은 독서를 권장하는 정책을 세웠을 때는 발전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통계를 이용하여 귀납적으로 도서관의 발전을 연구한 본 연구결과는 "국가의 발전과 도서관법 제정이 한국사서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조찬식(1996)의 연역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정치사회의 제 조건이 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Harris(1995)의 일반적인 도서관발전 이론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의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조건이 한국 도서관발전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도서관의 외적 요인들과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시(市)와 도(道) 도서관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수적인 원인들을 전부 밝히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 시(市)와 도(道) 도서관 발전에 변화를 주는 지도 결정하기 어렵다.

2) 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와 도의 도서관수,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자수를 순위별로 조사하여 비교하면 시(市)와 도(道)의 직원수, 장서수 등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많이 나서 범위가 넓다. 중간치와 평균치의 차이도 많다.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등이 양적으로 월등하게 많아 한국 도서관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와 도의 도서관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도 다르다.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는 여자직원의 수가 남자직원의 수보다 많다. 이것은 도시에서는 여성의 직업활동이 지방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도서관법의 개정이라던가 국가의 정책변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 직원수, 장서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서울의 증가책수가 전국 증가책수의 66.1%를 차지하는 것은 서울 도서관의 장서의 질이 다른 곳에 비하여 좋고 다양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도서관당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자수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도서관 시스템을 이룬다. 이용책수가 관계 없는 것은 도서관이 개가제를 실시하면서 관내에서 이용되는 책과 대출되는 책이 구별되지 않으며 디지털 매체도 이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인구당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인구수나 이용자수를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도서관이 전산화되고 여러가지 값비싼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게 되고

단체보다는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봉사하게 되면서 도서관당 예산과 직원수가 어느 정도 많아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학생수에 기준을 두고 운영하던 문교부의 대학도서관의 기준도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당 예산이 많아져 증가책수가 많아지고 이용자수와 이용책수도 많아지게 된다(이진영 1976). 과거 한국시(市)와 도(道)의 도서관은 정치와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매우 불규칙하게 발전하여 현재의 도서관 현황에 큰 차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도(市道) 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봉사대상 인구수보

다는 도서관당 직원수와 예산액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 외국의 도서관당 장서수, 직원수, 예산액 등과도 비교할 수 있는 국제도서관학 방법을 이용한 과학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시(市)와 도(道) 도서관의 큰 차이는 수집된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서관 통계자료의 항목을 정확하게 재정의 하고 시도의 관종별 현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에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더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형, 이기훈. 1993. 「통계자료분석」, 서울 : 자유아카데미.
- 사공철등편.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손정표. 1993.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지역계획에 관한 고찰", 도서관 328: 17-36
- 유길호. 1994. "부산 및 6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발전추이와 현황 비교", 부산대논문집 37: 75-91
- 이두영. 1991. "지역문화 발전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논단 23: 167-173
- 이진영 . 1976. "대학도서관의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성균관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명숙. 1995. "한국 도서관의 장서수 증가추세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사회과학연구 2: 181-199
- _____. 1996. "한국 도서관의 발전과정과 현황: 한국도서관통계를 중심으로", 덕성여대사회과학연구 3: 219-263
- 조찬식. 1996. "우리나라 사서직의 역사적 발전: 1961년에서 1979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3): 67-84
- "정보화 추진내용", 동아일보. 1997 5. 29.

- 목요일. 6.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 도서관 법령집:
최초 입법부터 현행법까지. 서울
: 한국 도서관협회.
_____. 1955-1995. 「한국도서관
통계」 서울 : 한국 도서관협회.
ACRL university library statistics.
1992. Chicago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Beazley, Richard M. 1981. Library
statistic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rends 1968-1977,
summary data.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TIS
report PB82-27275).
Bowker annual: Library and book
trade almanac. 1996. 41st ed.
New Providence, N. J. : R. R.
Bowker.
Harris, Michael H. 1995.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Metuchen, N. J : The Sca-
recrow Press.
Jarred, Ada Delony. 1985. "Patterns
of growth in academic
libraries of four-year, state
supported institutions of
Louisiana and south Carolina,
1960-1979 : A comparative
study." Ph. D.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Lynch, Mary Jo. 1987. Libraries in an
information society: A sta-
tistical summa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Moran, Barbara. 1989. "The un-
intended revolution in
academic libraries: 1939 to
1989 and beyond."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0(1): 25-41.
Ranganathan, S. R. 1931.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Madras: Library Association.
Statistical report '93: Public library
data service. Chicago: Ame-
rican Library Association.